

# 東大新聞

1998년 (불기 2542년) 3월 30일 (월요일) 제 1244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단 -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 부주관 조창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최정석 / 100-715 서울시 동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0561) 770-2057

## 김주일이언

힘을 것이 아니면 배우지 말고 힘을 것이면 반드시 행하라. 이미 생각해야 할 것을 안다면 번뇌가 사라질 것을 얻을 것이다.

법규경 · 교학총 31실

### 발전기금 3백 50억 달성 경제불황속 기부 잇달아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성학)는 98년 1월 1일부터 동국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지난 27일 3백 50억원을 돌파했다.

등문,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불교계인사, 일반인 등 총 6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모금운동은 발전기금, 동국사랑기금, 동국기금,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비전 동국 1백주년 후원기금조성운동,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운동, 민불불교연합회기금운동, 민불불교연합회기금운동, 동국사랑기금운동, 동국기금 1번 내기운동 및 장학금 되돌려주기운동의 캠페인도 벌였다. 이번 모금운동은 국가경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교신자나 일반인들의 계속된 참여 속에서 3백 50억원 달성이 이루어져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편 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 측에서는 2천 2천까지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5백억 달성 모금운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동국사랑기금모금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98학년도 예산 편성확정 전년대비 90억 인축재정

예산조정과(과장=김준호)는 본교 98학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약 90억4천만원이 감소한 1천1백 65억2천4백99만원으로 확정·발표했다. 등록금 동결에 따라 등록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90여억원의 인축편성안 이번 예산은 교비 9백14억4천4백46만원과 기성회비 2백50억8천33만3천 원이다.

또한 지출에 있어서도 교내인건비를 증액하고 행사비, 회의비 등의 관리운영비를 줄여 소모성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조정과의 관계자는 "본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개편에 따라 발전지향적인 사업과 교육, 행정, 전산망 시스템 도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 김정매 외국어교육원장 대학원생 대상 강연

본교 외국어교육원장인 김정매(영문학) 교수는 한 미교육위원단의 후원아래 승설대 사회봉사관에서 오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미국사회에서의 성격형성의 재구조'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민주성과 신뢰 회복하는 학생회 건설

### 총학후보, 유세에서 공약 제시 ... 투표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제30대 총학생회와 제13대 총여학생회 건설을 위한 유세가 지난 23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동국관과 도서관 앞에서 진행됐다.

각각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합동유세에서 총학생회후보 구준서·이미성씨는 "지난 11월선거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역설한 뒤 "동학의 현장에서 여성을 지켜나가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히며 △성폭력 관련 학칙개정 추진 △3기 배따이 대학준비위원회 건설 △거리문화제 개최 △2회 '여성일이 즐거운 체육대회' 개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 사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청년학생들이었다"며 "한총련과 학생회를 민중과 학생들의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공약으로 △경직성과 소극성을 버리고 단결과 혁신으로 한총련과 서

총련을 사수 △과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의 복원과 민주성 회복 △대중적인 사업과 투쟁전개 △노동자, 농민과 연대한 청년학생들의 건강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총여학생회 후보로 유세에 나선 이정화·손경옥씨는 "IMF의 경제위기속에서 취업불이익, 직장에서의 내몰림을 당하는 현실은 여성들의 실지리를 없애고 있다"고 역설한 뒤 "동학의 현장에서 여성을 지켜나가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히며 △성폭력 관련 학칙개정 추진 △3기 배따이 대학준비위원회 건설 △거리문화제 개최 △2회 '여성일이 즐거운 체육대회' 개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3일에 열린 1차유세에서는 유세시작 직전에 경제학과 모교수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준비된 시설물을 걷어차고 증선위장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등 소란



시진부

을 피워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27일 시작된 총여학생회장 투표는 내일(31일)까지, 총학생회 선거는 4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5개 단과대 학생회선거 투표는

오늘(3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 30대 총대의원회 선거는 단독출마한 신현찬·이종섭씨가 총유권자 2백 39명중 1백

49명이 투표한 가운데 1백 37명의 찬성으로 91.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으며, 이과대와 사법대대의원장은 각각 서기석(물리4)과 서미현(역교3)이 당선됐다.

### 보리소

### 선지식

정병조 (문과대 인문학부)

'보살지지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규범을 대승적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이다. 흔히 불교의 윤리를 대승과 소승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가 오게, 쉽게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금계조향이다. '...을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 태도가 소승적 불교수행의 특징이다.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참여, 증세제도 등을 요구하는 편이다. '보살지지경'에서는 삶의 목표를 성불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다. 그 까닭은 좋은 벗을 못 가졌기 때문이다. 즉 선지식은 우리를 정도로 이끌지만 악한 벗은 늘 우리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 뜨린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경전에서 성불의 조건으로 훌륭한 스승, 수승(殊勝)한 업장, 본인의 노력 등을 들고 있다. 이 네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성불의 길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벗이다. 흔히 친구를 늘리 상대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철들고 나면 출세나 이익없는 사다림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벗은 삶의 반역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반이라는 말을 쓴다. 이성간의 사랑에는 소유욕과 애증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벗은 그와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없으면서도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마음 더 놓을 친구하나 없이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 간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다. 불교에서는 이 진리의 도반을 선지식이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은 청중들을 호칭할 때 선남자, 선여인, 혹은 선지식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지자에는 예언자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선지식에는 말 그대로 '착한 벗', '진리의 동반자'라는 의미가 배어 있다. 눈을 들어 벗을 살펴보자. 과연 나에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길을 권하는 인인가, 아니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하고 잘 나가야 한다는 인생관을 가졌는가. 육식을 가리는 안목 또한 내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일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선지식들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정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는 부처님이야말로 선지식이 아니겠는가.

### '21세기 동국' 위한 작업 한창

경영진단팀 업무 착수 ... 학내구성원들의 관심 필요

#### 9월말 작업 완료

본교의 위상 및 강·약점을 진단, 추구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실천력 있는 개혁전략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대학의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컨설팅팀 이하 경영진단팀을 구성, 지난 16일부터 동국관에서 상주근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경영진단팀은 우선 21세기 동국의 모습을 과연 무엇인가를 확립시키기 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의 본교와 그 비전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비전의 명확화' 부분에서는 기업논리를 도입, 대외적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전략과제의 현실성 있는 구성'은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 장애요인의 파악'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송계정 경영진단팀장은 "수차례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

과가 미흡했던 가장 큰 요인은 본교의 심각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형식적 개혁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라며 "개혁에 있어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팀장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상이하지만 가치를 극대화 시킨다는 점에서 대학도 기업 논리를 배워야 한다고, 행정도 학생민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2.5개월간 종합진단, 2.5개월간 비전 및 전략수립, 1개월간 조정 및 합의의 등 총 6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9월말경에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본사시령

- ◇임수습기자
- ▲이철웅(불교대 불교학부 1)
- ▲김진아(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 1)
- ▲최은진(사범대 역사교육 1)
- ▲정영희(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1)
- ▲류정민(인문과학대 미술학부 1)
- ▲원준연(자연과학대 조경 1)
- ▲이윤미(상경대 경영학부 1)

### 교양강화 이대로 좋은가

## 콩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

한 강좌 최고 2백50명 수강 ... 공간·강사 확보 시급

학부제 시행이후 교양과정 이수율의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교양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교양강좌는 한정되어 있어 한 강의실에서 2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등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학생들의 교양과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교는 98학년도 이후 수강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강좌에 한해 추가 강좌를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기 강좌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그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정보산업대학의 한 학생은 한 강좌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어 수업을 제대로 듣기가 힘들다며 수강취소를 했다.

98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양강좌의 수강학생 수를 조사해본 결과, 1개 강좌당 1백명에서 1백60명의 학생을 수용하

고 있는 강좌는 '불교의 윤리'와 '한국문학의 이해'를 비롯해 65개강좌이고, '선과 인간', '소설의 이해' 등 33개강좌가 1백 60명에서 2백 20명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이해'는 2백 50명이나 수강을 하고 있어 강의실은 마치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한다.

교양강좌에서 1백 3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담당교수는 "대형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학생이 많다보니 두번 나감 과정에서도 한번으로 졸업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수업의 효율성 저하는 공간부족과 강사부족에서 기인한다. 많은 학생들이 한 강좌에 몰릴 경우 분반을 하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본교의 경우 강의실과 강사의 확충이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측은 교양강좌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공에 몰두해야 할 3, 4학년들이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50%이상을 차지해 교양강좌의 포화 상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수강정지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정지 인원이 많아 실제로 분반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한 교원의 확보는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교수의 노동과인을 해소하고 연구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의가 보다는 강연에 가까운 교육여건은 교육개방 시대를 맞이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박영실 기자

### 논문게재연구비 지원 확정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는 98학년도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연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마감, 전체교수의 73%인 4백 39명을 확정했다. 올해로 네번째 실시되는 이번사업은 전국적으로 저명

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본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투표율이 보여요

# 차 차 차

### 선거에 참여 참여 참여 합시다

가능한 참여 57.6%

참여하지 않았다 10.1%

반드시 참여 26.8%

총여 - 3월 30.31일

총학 - 4월 1.2.3일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 시령과 정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약정)자 현황 (기간: '98. 3. 16~3. 27까지)

교과대학원 98.3월인생일동(124명) 62,334,400원
장정숙(불교대학원)3백6만원(합5백6만원) 열 1)
임재경(행정대학원) 1백6만원
한상범(법학과 교수)1백6만원
황희서(경주법정학부 교수)1백6만원
구본철(경주국외어문학부 교수)1백6만원
문태수(경주경상학부 교수)1백6만원
박인섭(불교신도)1백6만원
유영택(행정대학원 98.3월인학)50만원
박해룡(행정대학원)20만원
이미숙(행정대학원)20만원
고경숙(행정대학원)20만원
김신석(행정대학원)10만원
태진희(기타) 2만원
정해련(선학부)1만원

※ 특정목적기금 : 법정대학발전기금 (사사)1차참격자 최정복 지원금) 정성도(경주법학4년,동양증권윤시지점장)2백만원 김상수(법과대학 교수)1백6만원

※ 동국사랑기금(누계 95.12-현재 : 3,505,790원) 김준호(예산조정과장)3,070원 박동수(불교대학원교계장)20,580원

※ 수증물품 법학과박사과정3인(조성호,조광렬,이성진) 법과대학 교학과에 Fax기증 : 803,000원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본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

# 류재을 열사 1주기 추모제 열려

###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 ... 국보법 철폐 · 불온선전물 배포 중단 촉구

지난 20일 열 제 30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선진·수교4 이하 비대위)의 주최로 '류재을 열사 1주기 추모집회'가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3월 20일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개강투쟁선포식 도중 습진 류재을군을 추모하기위해 열린 이번 집회는 정주영(영교4) 사법대 부학생회장의 사회로 △민중의례 △최진범(영문4) 문과대학생회장의 추모발언 △사법대 율동패 공연 △이종환(전산통계4) 아간강좌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석방에 관한 발언 △박영민(건축4) 동아리연합회장의 민중생존권 탄압에 관한 발언 △성나현(응용생물3) 생자대학생회장의 김영삼 사법처리를 위한 발언 △이선진 비대위원장의 투쟁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진범 문과대학생회장은 “평소 여는 학생과 다름없던 류재을 열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류재을 열사를 죽음을 애가지 이르게 한 김영삼정권은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아간강좌총학생회장은 3·13사범은 국민적 기탄이었다

고 평가한 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장기수와 청년학생을 비롯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박영민 동아리연합회장은 “TMF의 현실속에서 우리 학생을 비롯한 민중들은 투쟁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며 재벌해체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또한 성나현 생자대 학생회장은 김영삼정권은 경제파탄과 대선자금, 수많은 민중을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선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두환, 노태우는 뺨뺨하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청년학생들

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백만 청년학생의 이름으로 한 총련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도서관, 동국관 앞에 이어 후문으로 나가 선전전을 한 후 해산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0일에 열렸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개강투쟁선포식후 불온선전물이 교내에서 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합총련’을 발설하고 다시 학생운동을 탄압하기위한 안기부와 보안수사대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두 조직을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회전무대

### 황당

O... “이걸 어찌죠?”

지난 23일 오후 총학과 총여의 합동유세를 보기위해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강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경제학과 교수가 유세장에 와서 집기를 걸어서 그 자리에 있던 총선위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는데.

이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학생 한마디 “수업이나 학생회 건설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 재활용

O...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불상 앞에서 진행된 동아리박람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이지만 썩경을 열고 보니 그 내용이 예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동아리소개지는 걸표지만 다들 속내를 드러내 동아리 소개글은 지난해와 같은 것이 대부분이라서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재활용을 철저히(?) 수행하는 동아리박람회라”

### 열악

O... 인기강좌에 학생들이 대거 모여들어 수업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더군다나 교수들이 마이크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뒤에 앉은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내 “교수님 질문 글씨가 안 보여요”, “말이 잘 안들려요”하는 게 일이라는 것.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3류 극장에도 가봤지만 이곳만큼 스크린과 사운드가 열악한 곳은 처음이야.”

### 부풍소

O...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닥친 ‘부풍’. 이제서야 내막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미흡한 정치인들은 정쟁에 여념이 없고 안기부의 전책일지는 칼부림(?)으로 지해소통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실마 ‘부풍’이 ‘권영해 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소”

## “의식있는 유권자가 되자”



이주용(철4) 총선위장 인터뷰

발이 안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지난 11월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비뚤점이 있다면.

=총선위에서는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서 11월 선거에서 6천부를 제작했던 정책자료집을 이번에는 3천 5백부로 줄였고 대신에 총화, 총여, 총대 후보들의 공동포스터 5백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3월선거는 시기적 특점 때문인지 유권자가 2천명정도 늘었다.

-지난 23일에 있었던 1차유세도 중 경제학과 교수가 유세장기를 걸어서 총선위원회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학생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속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론한 학생회의 건설과 강화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생회의 위상이 전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러나 ‘약화됐다’는 말에 집착해서 ‘학생회’ 자체를 포기하면 안될 것이다.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식과 믿음속에서 투표에 참여할 때 학생회가 강화되고 이것이 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1월 선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게끔 하는 각경도 있지만 동약의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유철주 기자

이주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총선위) 위원장을 만나 오늘(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5개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대한 총선위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전반적인 선거문위가 지난 11월 선거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위가 가라앉아 있어 걱정이 되는데 사실이다. 각 단과대의 단위일정과 이번 선거의 일정이 겹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중선위 또한 비대위체계에서 출발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진다. 단과대 대의원장을 중 4명이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치르고 있어 중선위 내에서도 힘들어 하는게 사실이다. 그동안 중선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이번 학생회선거를 무사히 치러내도록 하겠다.

-후보들의 총학후보 선전물과 공대학생회후보의 공보 사진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총학후보 후보들은 누군가가 불태웠고, 공대학생회후보 공보 사진의 경우 계속해서 없어져 벌써 여러차례 다시 붙였다. 학내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 학내구성원전체가 관심을 갖고 문제 제

## 사범대·생자대 오늘 해오름식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준호·불교4)와 아간강좌총학생회(회장=이종환·전산통계4)는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학술관 앞 광장과 본관 중앙당에서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한편 사범대학생회(회장=이선진·수교4)와 생자대 학생회(회장=성나현·응생3)는 오늘(30일) 각각 본관 중앙당과 해오름 앞에서 해오름식을 갖는다.

## 노조 98년 임금협상 예정

직원노조(위원장=김철욱)는 지난 26일 98년 임금협상 및 보충교섭을 학교측에 요청했다.

4월초 교섭을 할 예정인 노조측은 5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98년도 임금 인상 △고용안정 확보 △대학운영의 민주적 참여 보장 △노사공동의 사학연계제도 개선 △학내 장애인 시설 확충 등이다.

## 튀고 깨는 동아리 NEO-AD

NEO-AD는 튀는 생각/깨는 생각이라는 기초 아래 광고제작 실무분야를 함께 학습하고자 95년 창설된 광고학과내 동아리.

올해 3월에는 회지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학기중에는 강연 등을 통해 광고이론을 학습하고 방학 중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모전에 참여, 2학기에는 광고 제작 과정 견학등을 할 계획이다.

## 임대매장 판매가격 인상

### 원가상승으로 23일부터 올려 ... 생협 직영매장은 동결

환율 폭등으로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내 직영 및 임대매장의 음식 판매 가격이 지난 23일부터 인상·판매되고 있다.

인상내용은 명진가든의 분식류 부분이 △리면이 6백원에서 7백원 △떡만두국이 9백원에서 1천1백원 △우동이 8백원에서 1천1백원 △짜장면이 9백원에서 1천1백원 △냉면이 8백원에서 1천1백원 △김밥, 튀김, 떡볶기가 7백원에서 8백원 등으로 인상됐고, 또한 복사비가 30원에

## 멀티미디어실 개장

도서관 1층의 멀티미디어실이 이번 주 중으로 개관식을 갖고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된다.

본래 3월2일 개강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장하기로 했으나, 멀티미디어 통합에 있어 호환성 부분과 그 밖의 시설상의 문제로 개방이 한달 가량 늦어진 것이다.

멀티미디어실은 위성방송과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8대와 대형 프로젝션 TV 1대, 위성·유선방송은 물론 VOD, CD-ROM 등을 이용할 수 있는 PC 30대를 갖춘 최첨단 정보검색 공간이다.



사랑을 나눠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이웃사랑 나누기, 동국인 나라살리기 헌혈행사'가 치러졌다. 지난 25일 도서관 헌혈처에서 한 동국인이 헌혈을 하는 모습. 남대철 기자

##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상담 실시

오는 1일부터 단과대별로 취업과(과정=김병수)는 다음달 1일부터 98년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상담을 실시한다.

이 행사는 각 단과대별로 4월 24일까지 치러지며 올해 상·하반기 기업 채용계획 및 자격증 취득방법,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등에 대해 김병수 취업과장과 김혁배 취업계장이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한다.

이와 관련해 김혁배 취업계장은 “취업 전망이 어두운 현실에서 서

## 개인별 취업상담 실시

I.M.F 관리 체제하에 실물경제 및 기업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98년도의 취업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과에서는 최근 취업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 취업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상담일시 : 98. 4. 1(수)~4. 24(금) 10:00~16:30
- 상담장소 : 취업과 취업자료실
- 대 상 : 99년도 졸업예정자
- 대학별 상담일정

상담대학	상담일정	비 고
불교대, 법과대	4. 1(수) ~ 3(금)	12:00~13:00 상담제외
사과대, 경상대	4. 6(월) ~ 7(화)	
이과대, 생자대	4. 8(수) ~ 10(금)	
공과대	4. 13(월) ~ 14(화)	
사범대	4. 15(수) ~ 17(금)	
문과대	4. 20(월) ~ 21(화)	
예술대, 이부대	4. 22(수) ~ 24(금)	

학 생 처 장

## 판매물품가격 인상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적영 및 임대매장의 판매 물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 조치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상시기 : 98년 3월 23일부터
- 공산품 가격 : 시중 소비자 가격의 10% 할인(일부 품목에 한해 동결(10원) 문제로 제외)

구 분	명진가든		구 분	생활협동조합(항관, 동국관, 원흥관)		
	품명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분식류	리면	600	700	리면	1,000	1,000
	떡만두국	900	1,100	떡만두국	1,200	1,200
	우동	800	1,100	우동	1,200	1,200
	짜장면	900	1,100	짜장면	1,200	1,200
	냉면	800	1,100	냉면	1,200	1,200
	김밥	700	800	김밥	1,200	1,200
	떡볶기	700	800	떡볶기	1,000	1,000
	튀김	700	800	튀김	1,200	1,200
	짬뽕	1,300	1,300	짬뽕	1,200	1,200
	전만두	1,800	1,800	전만두	1,200	1,200
	샌드위치	1,000	1,200	샌드위치	1,000	1,200
	호박죽	800	800	호박죽		
스파게티	1,300	1,300	스파게티			

구 분	A4	B4	무인복사	구 분	3x5크기	4x6크기	종 명
복사 인상전	30	30	30	사진 인상전	160	220	5,000
요금 인상후	40	40	35	요금 인상후	180	220	5,000

생 활 협 동 조 합

## 생활·문화강좌

- 생활속에서 문화를 문화를 생활속으로...
- 하나, 그림학교 ●
  - 1. 한국화
    - 강 사 : 백수진(석사과정)
    - 일 시 : 매주 월요일 PM 6시 30분
    - 강좌내용 : 사군자, 정물, 풍경
  - 2. 서양화
    - 강 사 : 김민정(석사과정)
    -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강 좌 : 기초 소묘, 정물소묘, 석고테셀, 인물소묘
  - 둘, 붓글씨 ●
  - 1. 붓글씨
    - 강 사 : 이성환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 강 좌 : 기본획, 영자판법, 습자(해서)
  - 셋, 경당 ●
  - 1. 경당
    - 강 사 : 이원호(경당시범)
    - 강 소 : 만해광장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강 좌 : 기본기, 정도술, 예도24세
  - 기 간 : 4월6일(월) ~ 6월28일(금)까지(3개월)
  - 수 강 료 : 4만원(그림학교는 재료비 포함)
  - 접수기간 : 3월30일(월) ~ 4월3일(금)까지
  - 접수장소 : 학술문화회관내 대학원 총학생회실
  - 대 상 : 전 동국인
  - 문의전화 : 260-8761

제14대 대학원 총학생회

경부고속전철 난항 시사논단

새정부 국정사업 심사숙고해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새정부가 처리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산적된 일들이 이리저리 꼬여 있으니 시원하게 매듭지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고속전철사업은 모든 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논쟁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업조직의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공사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마스크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된 바와 같이 도로공사나 각종 구조물들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허술하게 시공된 것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공 후 재산성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이유로 들어 경부고속전철사업의 계속시행 여부에 대하여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주를 비롯한 동남권 지역에서는 경부노선 유보결정과 이에 따른 대구 이남지역의 시행예산 삭감조치에 대하여 강력한 반발과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부고속전철에 관하여 새 정부는 그야말로 매우 조심스럽고도 현명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슈는 이미 모든 국민의 이해와 관심사로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나 오랑만 있더라도 그 폐해와 역기능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 정부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정책결정자의 왜곡된 감정이나 집단의 편견에 좌우되는 판단에 의하여 정책의 수정이나 중단을 하려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의 토대 위에서 차분히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일차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무부처의 당초계획이다. 즉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해 보는 작업이 요망된다. 과연 부실공사가 전반에 걸쳐 있어 기존 공사 분을 폐기해야 하는 정도까지에 이르고 있는가. 만약 그 지경이라고 한다면 이는 예산일이 아니라 관련당사자에 대하여는 민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물론 전대통령과 정책담당자들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추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고속전철 사업의 전면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2조 5천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었고 이를 원상 회복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소요된다. 그리고 프랑스와 의 계약과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막대하며 국제적 신뢰로 인한 대외관계의 악화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수정보완과 더불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미 물



김영중 법정대법정학부 교수

법정대법정학부 교수 김영중은 경부고속전철사업장 흡수를 통하여 외환위기에 비추어 지금의 경기침체를 타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대우-경주-부산까지의 노선공사도 논란은 있으나 소요자원의 한계 때문에 시기는 다소 늦춘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노선은 울산, 포항, 경주 등 동남권 3백만명의 편의와 지역경제개발 및 문화의 세계화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서 많은 고심과 분석을 거친 뒤에 결정된 것이기도 하거나 혹은 국토에 부분적인 고속전철의 단계 노선은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설

생활장터 이겁다

'허리띠 풀라매기', '아나바다 운동'에 학교,학생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구조조정 준비에 한창이며, 학생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학내식당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근래들어, 타대학들은 총학생회 주도로 비록시장 같은 생활장터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교당국이 서로 협력해 지휘를 위한 '살림장터' 장터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들면 새학기 교재구입시기의 '현책 물러주기' 운동, IMF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가 외재상포 배제운동, 학교자금임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스트팩'과 학교로고가 찍힌 가방을 바래주는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쳐 오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교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고있지 못하다. 학생회 일꾼들은 선거에만 총력을 기울이기 바쁜 실정이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다. 학생회의 여러 일중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 개개인에 직접 관계되는 복지문제 같다.

이번 분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말포만 외친다' '복지문제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은 결국 기존 학생회가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지에 대해, 그 여론수집을 게을리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제 곧 학생들의 대표가 세워진다. 그 대표는 이런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을 냉철히 판단하여 현 시기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학내 매장 "가격이 올랐어요"

'음식값 차이' ... 생협직영매장 확대 필요

환율상승으로 교내 각 매장은 판매가격 인상을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과 이학 생협)측에 요구했다. 이에 생협은 이사회를 열어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고 각 매장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기로 합의해 지난 23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생협 이사회에 참석한 이선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학생 이사들은 △환율 안정성 모든 가격 재조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영매장 가격 동결 △인대 매장의 인상률을 최소화 △음료가격은 물품 공급 업체 가격 변동에 의해 조정 등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고 또한 협상 결과도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상내용을 보면 복사비는 종이값이 70%가량 올라 기존 30원에서 40원(무인복사 35원)으로 인상됐다. 복사 원가는 종이값이 오른후 장당 30.12전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40원으로 하고, 무인복사기의 경우에는 33원으로 업자측과 합의했으나 복사기가 1원 단위를 인식할 수 없어 35원

로 단가를 책정하고 대신 카드 충전시 장당 2원분의 가격을 더 넣어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사진관의 경우도 대부분의 기자재와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3x5 크기 사진의 경우 기존 1백60원에서 1백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식비인상일 것이다. 음식가격 인상내용을 보면 생협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대매장인 명진가든은 냉면을 기존 8백원에서 1천1백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부분의 음식값을 1백원에서 3백원까지 올렸지만 생협직영매장인 다향관 학생·교수 식당, 보리수, 아리수, 동국관 학생·교수 식당, 그루터기 등은 음식 가격을 동결했다. 또한 음료수를 비롯한 공산품의 가격도 명진가든이 생협직영매장에 비해 높이 책정되고 있다.

생협직영매장은 공동구매를 통해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지만, 임대매장은 개별적인



물품구입으로 생협직영매장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가격도 생협직영매장 보다 임대매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매장을 생협직영매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경주캠퍼스 지난 17일 관제 파장실에서 김용기 관제과장, 성일수 후생복지계장, 김덕수 학생회관 식당 업무, 진흥관 식당업무, 김중훈(사회복지3)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식단이 최종 협상을 했다. 협상결과 학생회관 식당의 만두국밥이 기존 9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오르는 등 대부분의 음식값이 1백원에서 4백원까지 올라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교내 매장의 음식가격 및 기타 물품의 가격은 학생들의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교육개혁종합관리팀의 과제

대학도 이제 시장경제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예견되어 대학부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사상 최초로 부도 처리된 단국대의 경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개혁화 시대에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시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번에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1세기 동국' 건설을 위한 교육개혁종합관리팀의 발족은 시의적절하고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본교의 현 위상 및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개혁과제의 중장기 발전안을 수립하고자 외부의 전문 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진단팀이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적인 시행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캠퍼스의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가 상실되야 한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필연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3주체가 사업의 진척도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늠할 수 있도록 개혁의 투명화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 3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샵 그리고 계획수립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작금의 현실에서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체계의 개혁을 포함한 대학의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그런 과제를 의면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주도하여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느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대학 당국의 굳건한 개혁의지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발전적인 참여로 개혁의 앞장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

Large advertisement for Samsung featuring a man's face and the text: '그대는 이 나라의 미래! 실력을 쌓으라. 경제위기는 선배들이 맡겠다. 20만 삼성인이 총력을 다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SAMSUNG 삼성'

동약로



동상이몽

"지금부터 총학생회 출범식을 거행하겠습니다"라는 소리가 지난 25일 1시 녹야원에서 울려 퍼졌다.

녹야원 잔디 앞에는 각 단대의 깃발이 세워지고, 그뒤에 학생들이 차례차례 앉았다. 기타와 드럼의 조화를 자아낸 바리암의 공연이 끝난 후 상경대 깃발이 녹야원의 잔디를 가르며 행진한다.

"우리 출범식 끝나고 바로 총학 출범식을 해서 그런지 출범식을 보러온 학생들중에 우리 단대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상경대 학생들. 그중에서 "출석 안빠지게 체크나 잘하자"고 말하는 학생. 그 소리를 들은 단과대 학생이 "우리는 안빠준다는데" 라고 말한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학생은 "왜 우리는 안빠지지. 그러면 수업 들어가자"며 여럿이 강의실을 향해 자리를 뚫는다.

군데 군데 빈자리가 생기는 가운데 내빈 소개와 인사가 이어진다. 사회자는 "부총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잇는다. 축사가 끝나고, 이에 내빈들도 20분도 채 안되어 하나둘씩 사라져 버린다.

총학생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단대 및 자치기구 회장단들의 인사에는 아랑곳 없이 한 상경대 학생의 "야 맨스그룹 유로스 언제 나오냐?"라는 물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오자"라는 권유를 하는 학생들도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학생회 출범식 본행사의 막은 내리고 뒤돌아가 이어진다. 지난 16일 총학에서 주최한 새내기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의 노래가 뒤돌이의 시작을 알리고 유로스의 춤이 이어지자, 녹야원에 모인 학생들은 출범식의 본행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뒤돌이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이날 행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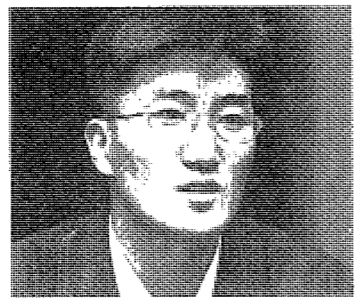
출범식의 의미를 뒤로 한채 불거리에만 관심을 갖는 학생들.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이번 총학 출범식을 평가하는 모 단과장의 말에서 알수 있듯이 온갖 일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합의 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준비가 부족했던 주최측.

올해 총학 출범식도 일반 학생들과의 진정한 어우러짐을 이뤄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자리였다.

박양우 기자

6기 한총련 손준혁 임시의장 인터뷰

"투쟁으로 단결, 실천 통해 혁신하겠다"



이 학우들을 만나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이다. 학우들을 주인 주체로 세워내는 것은 사업계획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실천속에서 풀려나가는 것이다. 혁신을 현실화하는 것은 과제를 제시하면서 혁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4월 초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상은. =4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열릴 것이다.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임시대대회를 열려면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당면 투쟁과제 및 정세인식을 위해 임시 대대회를 가자갈 예정이다. 임시 대대회는 규약상 1박 2일간의 일정이며 마지막 날은 '한총련의 밤'을 개최할 것이다.

-올해 6기 한총련의 투쟁방향은. =IMF 경제침탈이 노골화 되면서 민중의 살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러한 IMF 경제침탈을 분쇄해내는 것이 현재 당면과제이다. 학우들이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취업문제도 IMF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생자치권탄압을 막기위한 학원 자주와 투쟁 등을 광범위하게 벌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미투쟁을 총체화해 나가겠다. 또한 학우들이 반미투쟁을 담임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천으로 풀어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국가보안법 철폐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3월 13일 대대적 사

면했다 하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민주화의 길이 막혀 있고 많은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 투쟁의 핵심적 과제를 위해서도 국보법 철폐는 중요하다.

이를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일구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노학연대선봉대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의 틀은 이런 저런 식으로 하지는 논의가 아닌, 한총련이 먼저 결의해서 연대의 틀을 잡아 나갈 것이다.

또한 한총련이 요구받고 있는 또하나의 투쟁은 96년 연대행정의 진상규명, 출범식과정 등에서 언론으로 인해 왜곡된 부분을 민중들과 함께 재정의하는 것이다.

-올해 통일대회를 바라보는 임시의장의 견해는. =잊지말아야 할 점은 통일대회는 남·북·해외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범민련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화통일민족대회와 범민족대회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통일대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통일대회의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학우들과, 국민들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세가지 원칙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통일대회의 상을 만들겠다.

정신대 국가적 배상 요구

국제사회에 당당히 외쳐라

지난 3월16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국제기구의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며, 새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읽을 수 있는 태도 변화에서 우선 반갑다.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 우리측의 노력적 우위를 내세우며 일본 정부에 대해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천명하였으며 다만 민간 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이나 진상조사운동 등은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계속 요구해온 자료공개나 진상조사를 위해 아무런 압력도 가하지 않았으며, 양국의 수녀회담이 있을 때에도 민감한 사안이라 하여 오히려 외교현안에서 제외시키곤 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1990년 7월 한국정신대연구회가 먼저 발족되었고, 운동단체로서 그해11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이하 정대협)가 생겨나게 되었다.

정대협은 91년 1월 이후 수상의 방면에 즈음하여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규탄과 반대의 뜻을 담은 시위를 벌였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대해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91년8월 김학순 할머니가 군위안부의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자신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다음달에는 정신대 신고전화기 개통되고 정부기관에 정신대 실태조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처음으로 일본정부에서는 92년 7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결과가 공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군대위안부 제도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공식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고 발뺌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은 진작부터 준비해 온 카드가 95년 7월에 발족시킨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이었다.

다음달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들어간 일본측은 96년 여름부터는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전달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접촉과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본정부의 체면치레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국가차원의 배상금이 아님에 너무나 분명하다.

정대협은 이 민간기금 위로금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술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 또한, 지금와서 공식사죄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기금측이 할머니들에게 주려고 했던 금액 정도의 돈을 정부의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할머니에게 먼저 드린 뒤 일본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한다.

정부에 신고를 한 할머니들 중에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벌써 스무분 가까이 되는 걸 생각하면 한평생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할머니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말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가해국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 과정이나 절차가 좀 멀고 어렵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 당국의 깊은 이해와 확실한 의지일 것이다.

이정선(대구여성회 정신대문제대책위원장)



양심수 석방... 3·13 특별시면 후에도 민기협 어머니들은 보라색 수건을 둘러메어만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기협 목요일 집회'의 모습. 남대철 기자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과 입시명문 종로학원이 함께 만든 리케이온 어학원

개강: 4월 1일(수)  
등록기간: 3월 25일(수)부터  
교육상담: 3444-2227

나, 리케이온 다닌다!

몸에 배는 영어  
리케이온 어학원

'98년도 2학기과정 수강안내

영어회화 코스

• 영어회화 과정 - 회화영문법·작문·입문기초회화, Level 1~2, Survival English, Business회화, Free Talking

• 청취과정 - 회화청취, Multimedia English, AFKN

연세대 F.L.I. PROGRAM

• 연세대 어학원 과정 (10주과정)

• 4월8일(월) 개강 / 월·화·목·금 주4일 강의

영어시험대비 코스

• TOEIC - 단과종합, 고득점 실전

• TOEFL - 리케이온 종합 TOEFL, LC, SW, RC+VOC, Academy TOEFL, 실정TOEFL

• 수험영어 - 대학 전입 영어, 대학원 입학 영어

• GRE/GMAT - GRE종합, GMAT기본, GMAT종합

일본어 코스

기초문법 입문회화, 초급/중급/고급 일본어 회화

LYKEION TOEIC 통신강좌

통신학습과 학원강의 연계학습(매달 셋째주 월요일 개강)

취업 대비 코스

기초과정: 회화영문법·작문 실무과정: Business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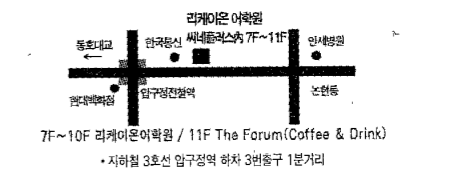
실전과정: Survival English 시험대비: TOEIC, TOEFL

취업 준비 Workshop

1개월 완성 취업 원별 대비

리케이온은 유학·시험준비에서 영어회화까지 한 곳에서 해결되는 One-Stop English 어학원입니다.

- 연세대 연세어학원의 시스템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하고 연세어학원 출신 Native Speaker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 영어실력을 근본적으로 잡아주는 유학 시험 전문 프로그램과 최근 수년간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최상의 교재로 실력있는 젊은 강사진이 강의합니다.
- Bilingual Speaker와 Native Speaker의 체계적인 영어회화 코스는 상이없는 현지 영어 그대로 영어회화의 참맛을 느끼게 합니다.
- 미국영어회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1인 1대 Computer Lab과 최신 현대식 자습실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커피, 음료, 핫도그 판매, 인터넷 무료 개방, 다양한 이벤트 개최, 외국인 강사와의 만남이 자유로운 문화 공간-The Forum이 있습니다.
- LYKEION 4월 토요 특별 이벤트(누구나 참여 가능)
  - 4월 4일: 화일 준비 Workshop, Konglish into English
  - 4월 11일: TOEFL 특강(TOEFL 고득점의 길 강의) TOEFL실전 모의 TEST
  - 4월 18일: Youth Program 학부형 설명회 (SAT상담 및 유학정보 제공)
  - 4월 25일 TIME 시사영어연구(조성규 - 연세대 명예교수) TOEIC실전 모의 TEST



몸에 배는 영어 리케이온 어학원  
LYKEION  
(02)3444-222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3-2

학생회와 선거 설문조사 결과

본지는 학생회건설을 위해 본교 재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학생회와 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거론되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한계는 ±1.63이다.

새내기 인터뷰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거를 맞이하는 새내기들. 그들이 생각하는 학생회와 선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새내기 오원기(사회과학계)군을 만나 들어보았다.

-입학하기전 대학의 학생회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생회란 단순하게 학교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역할을 할 뿐이었으나, 대학의 학생회는 민주적이고 또한 자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학생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유로운 곳으로 말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선거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느낀 점은.

=단기간에 학생회가 구성되면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3일씩이나 되는 투표기간이나 후보들의 유세 중간중간의 공연등은 색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1학년들 사이에서 선거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가끔 선배들끼리는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지만.....

-한달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학생회 활동이구나?' 하는 점은.

=과학회나 단과대학생회는 가까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총학생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새내기들의 새로배움터에서도 중앙공연보다는 단과대별 행사가 훨씬 많아서 그런지 총학생회라는 곳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다.

-새내기로서 바라는 학생회의 모습은.

=소수의 간부학생들만 참여하는 학생회보다는 일반 학우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열린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회도 기대해 본다.

박영실 기자

두 명중 한명 "학생회와 상관없다"

학생회선거 통해 일대혁신의 계기로



오른쪽부터 총학·총여·총대에 입후보한 후보자들.

본교 학생 두 명중 한명은 '학생회와 그리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의 위상을 위한 일대혁신의 계기가 돼야 하겠다.

총학·총대·총여 선거 입후보자의 이름과 선거일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생각 38.8%, 모르겠다는 생각은 61.2%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예정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26.6%,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57.6%, 참여하지 않겠다 15.8%로 드러나 유권자들이 대체적으로 소중히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믿음만한 후보가 없다 36.6%,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34.5%, 시간적 여유가 없다 16.2%, 부득이한 사정 10.4% 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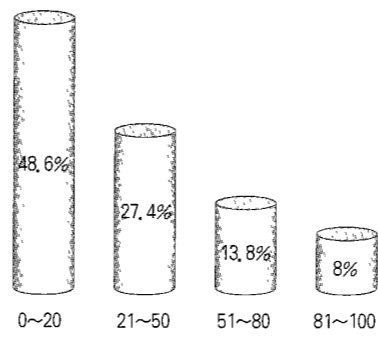
총학후보의 공약 중에서 '한총련사수·혁신' 지지도에 대한 질문은 지지한다 31%, 지지하지 않는다 69%로 나타나 학생운동에 대한 재고를 실감케 했다.

또한 학생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정치적 투쟁 일변이다 23.6%, 학내 복지문제에 대해 소홀하다 27.6%,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36.8%, 관심부족, 대중적지지기반미비 등의 기타의견은 12%이다. 학생회 건설을 위해 선거후 새로 출범하는 학생회는 개혁, 혁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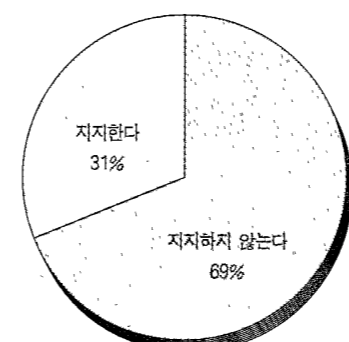
한편, 학생회와의 연계를 100점만점에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은 0-20점은 48.6%, 21-50점은 27.4%, 51-80점은 13.8%, 80-100점은 8%라는 결과를 보여 학생회·학생과의 거리차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회는 학생들과의 상호교류 및 의견 수렴과정 등을 통해 동반자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변인인 동시에 학생운동의 방향을 주도하는 주도자이다. 새 학생회가 새로 태어나 동약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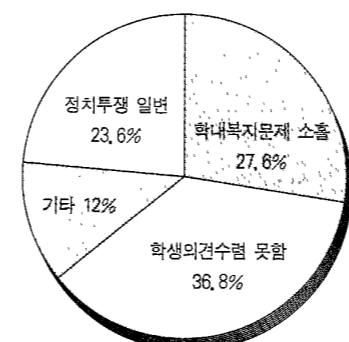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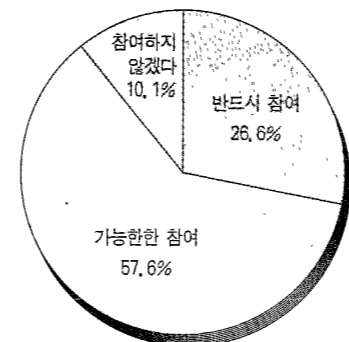
학생회와 자신과의 연계정도



한총련 사수·혁신



학생회 문제점



선거참여 여부

지상중계... 오석원 동국학원 이사장 초청 개강 대법회



IMF시대의 불자의 자세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으로 간단치 않아요. 누가 이분이 이토록 어렵고 어두울 줄 알았겠어요. 춘래불사춘이라더니 올해 같은 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각원장 스님이 "IMF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적 지혜"를 법문에서 말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듣고보니 이 시대 우리가 풀어야 할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화두는 "국가부도의 위기 극복"이라는 것이지, 현대 이런 거창한 국가 사회적 문제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지혜를 짜서 풀어야 할 것이지, 어찌 우리같은 산승이 더구나 이 교양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지, 경제를 말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에게 베푸는 것, 주는 것 즉 보시를 인생의 제일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경제란 주는 것만이 위주가 아닌 받는 것도 중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경제와 불교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인생을 떠나서 경제가 없고 또 마음을 떠나서 인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각원장 스님이 내게 준 화두의 의미를 알만도 합니다.

백장선사가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고 말한 이래, 이는 불교승단의 노동정신을 대표하는 말이되었습니다.

번역 참선하는 선사가 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하는가? 이 도리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부작이면 불식"이게 그 시대의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놓고 먹을 줄만 알지, 일할 줄 모르니 향산이 있을 까닭이 없고 향산이 없으니 땅자의 말대로 국민들의 향심이 없어진 것이야. 그러나 이시대의 시대정신은 일을 통한 생산에 있었던 것이지 다르게 아니야. 이처럼 백장선사는 한 시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 좀 해보지요.

IMF의 구제금융시대는 누가 불러왔는가? TV나 신문, 라디오를 듣거나 보면 IMF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더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들 해. 어렵게 된 처지를 은연중 "네 탓"이란 식으로 비난할 하고 있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도 아주 잘못된 식(識) 놀음에 떨어진 것이예요. IMF때문이라 아니라 우리를 자신이 잘못된 때문이지. 모두가 우리를 마음이 식(識)놀음, 그것도 잘못된 허위의식에 놀아났기 때문이란 말씀이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부도의 위기는 내탓이지 결코 네 탓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못 다스린 때문이예요.

내가 요즘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나라 위기를 국민들이 극복하려면 정도로 시는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 정도란 아집(我執)의 소멸을 통해 종교적 생명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다름아닌 팔정도예요. 우리나라 국가 부도위기는 모두가 정도를 잃은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보았더라면(정견) 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터무니 없는 달려 빛을 쬐겠습니까.

정견(正見) 바로보고, 정사유(正思惟) 바르게 생각하며, 정어(正語) 바르게 말하고, 정업(正業) 바른 일을 하며, 정명(正命) 바르게 생활하고, 정정진(正精進) 바르게 노력하며, 정념(正念) 바르게 기억하고, 정정(正定) 바르게 집중하는 것이 쉽게 말해 부처님 법인데, 우리들이 이렇게만 생활할 수 있다면 과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말하기 전에 팔정도에 입각해서 살아가자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살자는 것이고, 바르게 살다보면 웬만한 어려움은 그리 힘들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開眼) 즉 눈을 뜨라는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무엇에 눈을 뜨라는 것인가? 어렵까지 바른길에 눈을 뜨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국가적인 경제난도 정견하고 정업하며 정명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복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오늘 정각원장께서 좋은 화두를 주어 여러분과 함께 팔정도를 새겨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동남아 불교인들은 선가의 "이 뭇고?"를 찾기보다는 오계(五戒)와 팔정도를 더욱 중시합니다. 인간은 깨우침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활하고 사는 것도 생명활동이기에 이같은 불도의 닦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발행=오인택 기자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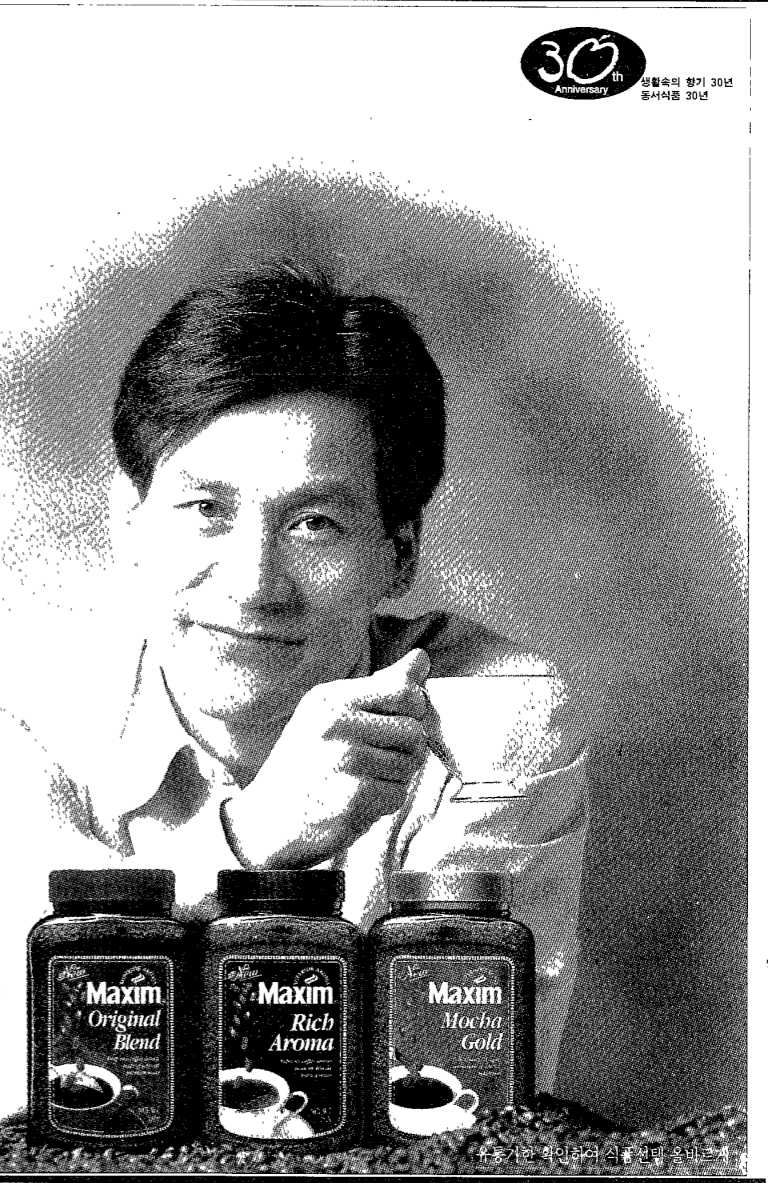
지금도 외제 커피를 찾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라도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커피 맥심의 우수한 품질을 아시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맥심을 비롯해 동서식품의 커피류 제품들이 97년 한 해만해도 세계곳곳으로 2,700만 달러어치나 수출되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식품이 커피라고는 외제 밖에 없던 시절부터 우리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온 지 30년! 이제 맥심은 세계정삼급 품질로서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속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류 품질만이 세계에서 통합니다!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30th Anniversary 동서식품 창립 30년 동서식품 30년

### 책소개

#### 나는 본다 철학을

대진대 철학과 김성환 교수가 영화와 철학을 접목시켜 강의한 방식 그대로 지면에 실고 있다. 김교수는 3년째 학생들과 비디오를 함께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매개로 철학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초적인 철학문제들을 10개의 장에 엮고 있으며 사르트르나 프로이트 같은 철학자도 함께 소개해 내용성을 더하고 있다.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뽀짝 담겨 있다. 등적, 정가 8천 5백원

#### 빈곤의 세계화

현재 온 나라가 경제 위기 IMF 한파를 겪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IMF의 실체가 무엇인지, 개혁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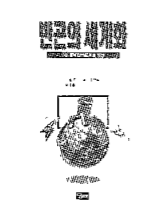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을 가르치는 초스토프스키 교수가 쓴 이 책은 IMF개혁 조치에 대해 세계경제의 체제의 성격을 논하고 실제 겪은 제3세계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IMF의 허와 실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재조명한다. 등적, 정가 1만 2천원

#### 사바디스파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자인 미국 텍사스대 해리 클리버 정치경제학 교수의 친지하면서도 읽기 쉬운 정치논문을 모음집. 흔히 '일주일 계탈라들'이라고 알려진 사바디스파들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지배 하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의 양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등적, 정가 1만 4천원

#### IMF, 저의 큰 탓이 옳습니다.

경제한파이후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탓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에 (주)화랑항공 대표이사로서 있는 김광연 씨가 나의 탓을 주장하고 나섰다. 작은 일화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냉소와 비판 조소를 자아내고 있는 이 책은 골치픈 글씨로 속 시원히 쉽게 책장을 넘기게 한다. 마음도 몸도 무거운 한파 시대에 가볍게 볼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책이다. 화랑디자인, 정가 5천원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초봄의 맹사한 캠퍼스 교정에 하얀 복련은 또 어김없이 피었다. 짐 소리도 들리고 북 소리도 요란하다. 얼른 보면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현대 평가 예년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 뭔가? 학생들의 생각이 그전 같아 보이지 않고 너무 차분하고 진지하게만 여겨진다.

학생들만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없이 팽배하고 긴장되어 있다. 그렇다. 이제는 대학사회도 더 이상 경쟁력의 무종지대가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안된다. 다소 느리긴 했지만 대학사회도 변혁의 큰 물결기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튼 반가운 현상이다. 대학도 변하고 대학인도 변해야만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21세기를 선도하고 살아가야 할 지금의 젊은 대학생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다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며 철저히 변화에만 살 수 있다'는 점을!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사실이지만 이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란 인식의 변화(뇌 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식이란 심리학적으로 인지란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 개념도 설명이 만만치 않다. 아무튼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삶도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다.

### 발상의 대전환기

그러나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자신들의 인지적 습관을 바꾸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의 관련서적 2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뇌내 혁명'과 '활활(해환)키우는 법' 둘 다 일본에서 출간되어 특히 앞의 책은 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초미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미 국내에도 번역되어 많이 읽히고 있다.

### 달하나 천강에

뇌내혁명의 요지는 우리 생각을 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면 베타 엔돌핀이란 뇌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그 결과 신체의 면역력과 기억력이 증대하여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학설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패환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1백가지의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둘 다 발상의 전환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책이라고 본다. 이 화사한 봄날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책이다.



김세곤 불교문화대 불교이동학과 교수

### 서평-일본 현대문학사상·하 일본문화 관통하는 '여·수용·이해' 지침서

#### 문학앨범식 구성 돋보여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가 60년, 90년대에 일본에서만 여겨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문학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오모토모리 마사오, 구리쓰보 요시카가 공동집필 한 원작은 기존의 문학사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소녀 문학사 전체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즉 디아스포라에서 교와 문학으로 전진과 전후 문학, 전후 문학사, 소녀 문학의 성숙, 현대문학의 현상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문학사가 실증적이고 문단사적인 측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본서는

분명히 '아니오'가 아닌 '예'로 대답해 가는 집합이임에 틀림없다.

이 역서는 고기쿠니에서 1990년에 출간된 '소외문학전집' 35권의 발간 중 제 2부 '소외와 문학사'를 번역한 것이다. 현역 평론가 호소 마사오, 구리쓰보 요시카가 공동집필 한 원작은 기존의 문학사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소녀 문학사 전체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즉 디아스포라에서 교와 문학으로 전진과 전후 문학, 전후 문학사, 소녀 문학의 성숙, 현대문학의 현상으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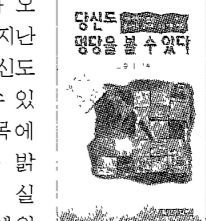
또한 기존의 문학사가 실증적이고 문단사적인 측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본서는

소외와 소녀와 맞물려 전개되는 문화사적, 정신사적 성격을 지향한 문학사이다. 예를 들어 관동 대지진과 신간자리의 탄생, 태평양 전쟁과 다카무라 고타로의 선동시 "그들을 물리치라" 전후 도시형 핵가족화와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사회 대가족이라는 의식에서 그 뚜렷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집필진의 면밀한 도전적 관찰과 산뜻한 문체로 어우러져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문학도들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작품의 실례를 통한 작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김석범의 '화산도', 이희성의

### 오홍석 교수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 발간

지리교육과 오홍석교수는 지난 달 13일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는 제목에 '지리학자가 밝힌 풍수설의 실체와 오늘에의 적용'이란 부제의 책을 발간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에 '땅과 사람들'을 연재하던 중 덕신미디어에서 출판제의를 받았다. 오홍석 교수는 "풍수를 연구하며 풍수가 본교의 불교사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선조들이 관조했던 땅과 자연과 환경을 아우르는 독자들에겐 훌륭한 지침서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오홍석교수 '당신도 명당을 볼 수 있다' 발간

### 맛! 성이 두개?...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 "내게는 어머니의 피도 흐른다"

#### 부계사회 고정관념 깨는 상징성 전달

총여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앞에 성이 두 개나 붙어 있는 후보들의 선거대자보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하는 중국인들이 많다. 그런 중국인들에게 총여학생회 정후보 박이정희(공학계열3)양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성이 박씨인 바이정희입니다." 다름아닌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인 것이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우려 속에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여성단체회원들은 물론이고, 교수·작가·의사 등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본교의 경우 지난해 11월 총여학생회 선거를 통해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처음으로 중국인들에게 알렸으며 현재도 꾸준한 홍보 중이다.

지난해 3월 9일 한국여성대회에서 선언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관한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하나의 사회문화운동이다. 본교 총여학생회 오신숙(영문3)양은 "가부장제라는 악습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생겨서 그로 인해 수많은 여자들이 빛 한줄기 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성차별이 여성차별로 확산되고, 이로 인해 민주사회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의 방법은 간단하다. 성을 표기함에 있어 어머니 성과 아버지 성의 순서를 어감에 따라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후대로 내려가면서 성씨가 혼란해질 것을 우려해 컴퓨터통신상에서 '엄마성 쓰기 운동'을

펼치는 신정모라씨는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성을 쓰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이 뒤섞이게 돼 '혈통'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남남를 평등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이들에 대해 여성운동이 너무 과격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부모성 함께 쓰기' 모임의 간사 고은광순씨는 "이 운동은 강박관념을 버리고 성씨 사용에 융통성을 주는 것으로 혼란이나 과격한 내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여성존중이 바탕이 되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운동이 될 것"이라며 "법·제도·관습이 여남평등을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이렇듯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편협한 페미니스트들의 집단행동이라고 바라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정당하다. 잊고 지내던 여성의 권익을 찾겠다는 것. 그뿐이다. 김미경 기자

### 전사의 후예들...



동아리바라타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불상 앞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검도부의 시범 모습. 남대철 기자

## 영국문화원 멀티미디어센터

25 YEARS OF SERVICE 1973-1998

영국문화원 회원에 가입하려면 저희 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영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http://www.bckorea.or.kr/services/>

영국문화원 멀티미디어 센터를 방문하시면 영국에 관한 참고도서, 영국의 신문과 잡지, 관광, 비즈니스, 유학, 장학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의 "좋은 영국영화보기" 등 다양하게 마련된 행사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1. 비디오 시청 및 대출  
2. 영어학습 오디오 테이프 이용  
3. CD-ROM을 이용한 정보 검색  
4. 영국문화원 게시판 "On...line" 발송

●업무시간 : 월-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7  
●Tel : (02)737-7157 (교화 213, 235) ●Fax : (02)732-3130  
●E-mail : info@britcoun.or.kr  
●Internet : <http://www.bckorea.or.kr> ■ <http://www.britcoun.org/korea>

**The British Council**  
주한 영국문화원

###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 YBM 시사영어사 어학원

(본원)

**영어·일어·중국어**

- 엘리트 종합 TOEIC
- TOEFL L.C.
- Communicate 회화
- 인박사 TOEIC
- 영어 순해/TIME
- Interchange 회화
- 실전 TOEIC 종합
- 기초 L.C./발음특강
- Side By Side 회화
- TOEIC L.C.
- AFK 정취
- GMAT/GRE
- TOEIC R.C.
- VOCABULARY
- 일본어 문법·독해
- TOEIC 단계별 강좌
- 영 작 문
- 일본인 일어회화
- 아카데미 TOEFL
- 영어실력기초
- 중국어 문법·회화
- 신경향 TOEFL
- Gateways 회화
- 주말 특별과정

**미국인 회화과정 (YEC)**

YBM English Conversation

- 정원제 (12명)
- Level Test 후 반원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최신교재 : YBM English 21

**대표전화 : 276-0509**

탑골공원(종로2가) 맞은편 YBM 시사영어사

개강 : 4월 1일

History of Excellence

반세기 동안 이땅의 영어교육을 선도한 시사영어학원은 종로서적 뒤에 있습니다!

총각역 4번출구 종로서적 뒤 TEL. 734-2442

시사영어학원 종로서적 YMCA

▶ 1학기 무료강좌 4월20일 21일  
▶ 무료 모의 TOEIC TEST  
- 날짜 4월 25일(토) 오후 2시  
- 신청은 미리 전화예약가능  
- 신청유지비 없음  
▶ 미국인회화 11 무량대역 전소  
- 날짜 4월 22일-24일(22시-24시)  
▶ 여름방학 영어 4월7일(화)-9일(목)

### 영상매체비평

TV드라마편  
서울방송 '3김 시대'  
'김빠진 맥주'를 보며



'3김 시대'는 사실형식화에 실패했다.

김빠진 맥주는 참 맛있다. 김빠진 맥주를 마시느라 차라리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키고 마는 게 훨씬 낫다는 건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울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3김 시대'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거 '김빠진 맥주' 아니냐? 당연한 얘기지만 맛 있는 드라마는 대체로 그 이야기의 전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야기가 논리적이면서도 또 그 논리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또 당연한 얘기지만 시청자들이 이야기의 전개를 이미 잘 알고 있다면, 그 드라마는 어떤 면에선 사실, 이미 실패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드라마

는 이미 드라마라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그런가? 뻔한 이야기는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고, 극적이지 못한 것은 이미 극이 아니기 때문에. '3김 시대'란 사실은 군부독재 30년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결코 완료되지 않았으며, 어떤 점에선 이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이며 형상화 작업들은 그 한 예이다. 그리고 IMF의 경제관리를 유달란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장면인인 재벌에 대한 논란도 그런 예이다. 그러면 여기서 저거 이미 여러 차례 다뤄서 익숙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식의 지적은 그렇게 타당한 지적은 아니다. 아무리 뻔한 얘

기라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아주 재미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극의 매력이다. 내용 자체의 신선함도 중요하지 못한 것은 이미 극이 아니기 때문이다. '3김 시대'와 같은 류의 이른바 정치드라마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작업이 성공하려면, 최근에 밝혀진 안기부 '복종공작'처럼 그동안 권력에 의해 감추어졌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드라마가 사실을 단순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3김 시대'는 이 점에서 아직은 자리 멀쩡한 면모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다지 쉽게 개선

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캐스팅 자체가 너무도 천편일률적인 결론을 예고하고 있다. 유인촌(김대중), 김용우(김영삼), 정동환(김종필)을 보고 드는 느낌은 '3김'이 아니라, '1김'이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3김 시대'의 캐스팅에서는, 이 드라마가 3김으로 상징되는 격동의 현대사보다는 수난과 역경을 담고 궁극적 승리를 정취한 한 정치가의 삶을 그리는 것으로 축소(왜곡)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3김 시대'가 어떤 정치적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렇지만 '김빠진 맥주'는 정말 사절이다.

홍성태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 문화의 부리가 석고 있다

## 국가지원정책 부재·복잡한 유통구조로 출판업계 '흔들흔들'

### 출판계회생 위한 국민 관심 시급

세상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선장없는 배나 팔없는 불어항, 학생없는 대학 같은 것 말이다. 우스개 소리로 넘기는 얘기긴하지만 이 이야기의 근본이론은 그렇게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책없는 서점, 책없는 도서관, 책없는 대학, 책없는 학생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수학교육과 1학년 남용훈 군은 '상상이 잘 안되는데요'라고 답했다. 책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당한 근거로 말이다. 최철단의 통신문이 구축돼 종이로 인쇄된 물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인류 발전에 가속기를 달아준 종이는 기록성과 열람성과 보관성이 인쇄매체의 장점으로 여전히 견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출판업계의 모습을 보면 책읽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동네 조그만 서점들이 문을 닫고 책 도매상이 문을 닫고 출판사와 출판물 관련 산업이 문을 닫는데도 사람들은 허리띠 조이는데만 급급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IMF한국에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다던데 출판계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출판계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 라는 질문에 동약의 한 학생은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나 출판계의 현 문제점이 이 경제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견해이다.

한때 서점들이 불처럼 생겨났다. 10평 내외의 영세소매상들이 생겨 도매상뿐만 아니라 소매상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형서점의 출현으로 영세서점들이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슬슬 문을 닫기 시작했다. 영세서점에 책을 납품했던 도·소매상은 황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도·소매상 연결고리에서 유통업계가 낱알만 어둡고 서점에 도매상으로 준 현금이 따로 돌게 되고 복잡한 거래망을 통해 결국 출판 유통의 실패점이 터지고 대동맥이 끊기게 된 것이다.

"출판사는 3~5개월짜리 어음을 도매상에 받지만 도매상들이나 소매상들은 서점에서 현금을 받게 되죠. 그러나 출판사는 아직 어음만 갖고 있는 경우가 되죠. 이런 자금회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이 문제를 확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거죠"

본교 구내서점 이재욱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지난 2월 '보문당'과 '송인서적' 등 도매상의 부도로 3월초까지 활동하던 4천여사의 출판사중 3천여사가 무너졌다며 이야기를 하며 유통이 마비되다시피한 출판공황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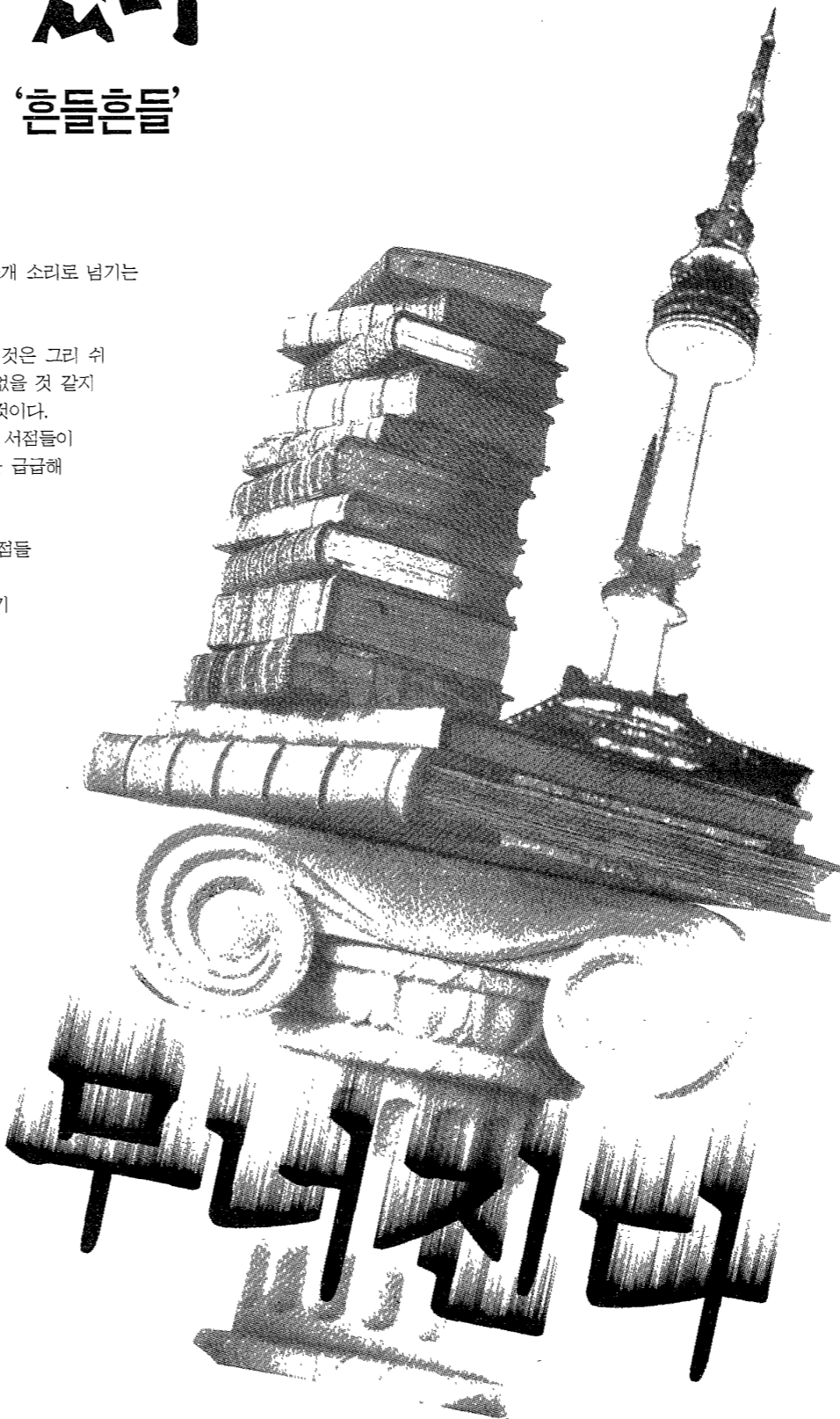
보다 못한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5일 문화관광부에서는 '출판계 위기극복을 위한 출판진흥 대책'을 발표했다.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4월 중 2백억원을 한국출판금고에 융자하겠다는 것과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출판금고기금을 현 1백40억원에서 5백억원(우선 2002년까지 공익자금 2백50억원 출연)으로 확충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현숙 깊은샘 출판사 사장은 "은행이자보다 저리의 용자를 해주는 것이지만 갖가지 조항들이 출판사의 발목을 잡고 있어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 지는 두고 봐야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간 애타계 정부차원의 출판산업진흥을 꿈꿔오긴 했지만 나라에서 살 길을 찾아 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출판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문화예산 삭감으로 뒤통수를 맞았던 문화계인사들은 어느새 계획이 무산될지도 모를 일이라서 우리의 말을 흘리기도 한다.

또한 출판관계자들은 이같은 난항을 겪으며 이구동성으로 '출판유통구조 확립'과 '안정적 출판산업보장'을 외치고 있다. 일본같이 양대 유통망의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망을 조성하고 정부산하 도서관의 일정량 신간도서구입을 통해 최저 출판부수를 소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책이란 백년지대계를 잇는 교육 부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살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책의 공급량을 가늠해 주기도 하지만 결코 양서의 다량보급이 헤가될 일은 아니다. 양서의 보급과 독서문화의 재기를 위해 출판계가 희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한 때이다.

최진 기자



## 인터뷰 어음남발 도매상부도, 출판업 경영난 심화

### 새정부 5백억지원, '그림의 떡'



'보문당', '송인' 등 국내 출판업계 도매상의 연쇄부도로 인해 출판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주)도서출판 '한길사'의 편집부 차장 윤양미(국문 87출)씨를 만나 출판계의 답답한 현실을 들어보았다.

-도매상의 부도로 가장 큰 어려움 점은.  
=책상을 '어음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간 도매상들은 어음을

남발해 왔다. 도매상의 부도로 어음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출판사·인쇄소 등 출판업계 전체적으로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경영난의 심화로 앞으로도 인쇄소나 소규모의 출판사들이 부도를 낼 것이다.

-새 정부가 5백억 지원을 약속했는데.  
=총 지원액 5백억 중 현재 2백억이 출판금고를 통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분명 양호한 출판업계의 희망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출판사들이 나름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지원금 활용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지원금은 '그림의 떡'과 같다.

-현 상태를 있게한 출판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출판문화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신간을 일정량 구입해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출판사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도매상을 통해서 책을 판매하

고 있는데, 그 의존도가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이 무너지면 2중·3중으로 출판사를 비롯한 인쇄소 등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껏 출판사들은 '이래' 출판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101가지 이야기'가 히트하자 '...가지' 신드롬에 휩쓸려 대중물을 발간하는데에만 집착해 왔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독자층이 확실한 전문서적을 출간해 꾸준히 팔리는 책을 발간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출판사업을 기간사업으로 여기는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미경기자

## 자아소식

### 학교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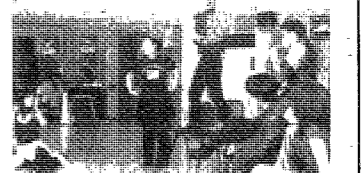
#### 두근두근 새내기 교양학교

21세기 진보 학생연합 주관, 본교 사과대 학생회 후원으로 새내기 교양학교가 열린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첫째날에는 '통일의 날', 둘째날에는 '인권의 날', 셋째날에는 '행동의 날'이라는 주제로 각종 문화 공연 및 주제 강연 등이 이뤄진다.

2일부터 3일까지 본교 학생회관 2층 연회관에서, 4일에는 연세대 인문관 110호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문의 사과대학생회 260-3636

### 학교 밖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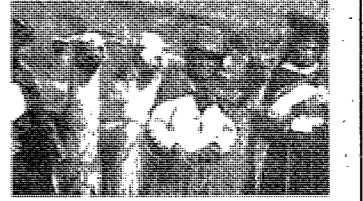
#### 그리스



브로드웨이 최고의 록뮤지컬이라 불리는 '그리스'. 로큰롤의 개화기인 50년대를 배경으로 미국 젊은이들의 생활을 그린 뮤지컬. 록큰롤 세대의 결코 반항이 아닌 도전, 사치가 아닌 개성을 보여준다. 본교 연영회 출신인 유준상이 주인공 데니 역을 맡았으며 그밖에 최정원, 이정용, 이재영 등이 출연한다. 특히 본교생이 예약관람시 20% 특별할인되며 10인 이상 단체관람시 A석에 한하여 50% 할인된다.

다음달 19일까지. 평일 7시반. 금·토·일 오후 4시, 7시반. 예술의 전당 로컬극장에서.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 5천원. 예약문의 508-8655

#### 지구촌 민속박물관



국제화 시대 이웃문화를 이해하고 세계교육을 위한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남산 서울타워에 개관했다. 지구촌 1백여개국의 회귀유물 및 오지 민속유물 등이 전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 대인 3천원.

#### 연니집

소외되고 실패한 인생들이지만 비겁하지 않은 삶,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그린 연극이다.

다음달 1일까지. 오후 7시반. 경주 예술극장에서. 6천원. 문의 0661-43-3855

## 메아리

### 그레샴의 법칙

▲18세기경까지 유럽에서의 모든 화폐는 오늘날의 주화에 대한 개념과 달리 1천원짜리 은화라면 그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이 함유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멋대로 화폐의 질을 낮추는 방법으로 명목만의 1천원 은화를 통용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량을 가진 종전의 좋은 화폐를 간직하여 내놓지 않고 합량이 모자라는 새로 주조된 나쁜 화폐로 대금을

지불하게 돼 품질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존 그레샴의 법칙이다.

▲24일 증권거래소의 발표에 의하면 30대 재벌 상장기업들이 자기자본의 4.5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날 경제전문지에 실린 매킨지컨설팅의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선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기업들에게서 생산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말인가.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총체적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기업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전문지에 실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면 정부의 경제개혁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지만은

않다. 불안정한 경제개혁은 결국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고용불안까지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말이다. 서둘러 둔 한 수가 무리수가 되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판세를 뒤엎는 형국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일반 국민들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함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 환율이 1천3백원대를 오르내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벌써부터 거리의 차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해외여행객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향락과 소비 문화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대처가 점차 회복세를 찾아가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3주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이해경 편집부장

